

울산, EU REACH 대응 지원센터 설치

울산지역 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지원을 위한 신 화학물질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.

울산정밀화학센터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는 12월18일 울산정밀화학센터에서 주봉현 정무부시장, 산자부·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 화학물질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.

행사는 현판식에 앞서 국제무역환경규제 대응 세미나, 울산정밀화학센터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간 업무협약식을 갖었다.

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된 REACH, WEEE, RoHS, POPs 등 국제화학 환경규제가 간접적인 수출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 산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체제 마련을 위해 울산 지역 제조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.

이에 따라 기업들은 물질 리스트업, REACH 사전 등록 및 본 등록, 시제품 개발,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선진국 대비 50-80% 이상 절감된 비용과 기간 지연 및 기술유출 등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신 화학물질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는 2007년 산업자원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2010년 7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3억4000만원(국비 30억원, 시비 15억원, 민자 18억4000만원)이 투입돼 42억원 상당의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관련 시험설비가 구축 운영된다.

울산시 관계자는 “신화학물질 규제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으로 시험분석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갖춰 영남권 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제환경 규제대응 허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”으로 기대했다. <김 은 기자>

<화학저널 2007/12/18>